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
건의문



충청북도의회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 건의문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건설교통부장관님, 대한교통학회 회장님

21세기 국가의 선진 도약을 위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혼신을 다하시면서 지역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150만 충청도민의 뜻을 모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에 대한 당위성과 신뢰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3용역기관 선정 요구 등 도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강력히 주장하여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는 충북선과 연계되어 강원남부·경북 북부로 이어져 동서간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기존의 경부선 철도와 충북선·태백선이 X자 형으로 구축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과 국민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오송기점역은 대전·충북·강원·경북 등 이용권역이 크게 확대되어 승객 수요가 천안기점역의 5배에 달하고 공주지역의 세계적인 백제문화유적을 훼손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권에 있어서는 정부대전청사, 3군본부, 대덕연구단지, 국립묘지를 비롯하여 충북권의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산업단지, 청주국제공항, 공군사관학교, 내륙화물기지 등 중부권 주요 국가시설의 이용과 활용도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도민은 오송기점역 설치가 철도망 체계의 효율성, 개발의 경제성, 지역균형개발 효과 등을 감안한 최적의 대안임을 대전·강원·경북지역과 연대하여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지역적인 열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호남고속철도 연구 용역이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정부가 아산·천안 신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정치적 의구심과 함께 오송기점역 설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조사 연구용역 과정에서 서울-천안간 복복선 설치나 새로운 노선 설치가 검토되고 있어 오송기점역 설치가 불리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라 우리 150만 충청도민은 크게 동요함은 물론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 연구용역이 정치적인 논리에 작용하거나 아산·천안 신도시 개발계획이 분기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종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장기적인 지역균형발전과 국익 측면을 고려하여 지역 숙원사업인 오송기점역이 반드시 설치될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150만 도민의 뜻을 모아 다시한번 간곡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2002. 2. 1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